

시편은 성문서(hagiographa)에 속하며, 대부분의 옛 필사본에 의하면 성문서 첫 부분에 놓였다. 눅 24:24에서도 시편을 성문서의 대표주자로 이해한 듯 하다.

시편의 성격-인간의 신께 대한 말씀(찬양, 기도, 감사, 불평...)

시편은 다윗의 작품? (행 2:25, 34; 4:25; 11QPs^a col. 27, lines 2-11)

-시편연구는 궁켈(1862-1932)의 양식비평으로 시작(An Introduction to the Psalms, 1933; ET 1998). 구약분야에서는 모빙클(1884-1966)의 시편연구를 통해(Psalmenstudien, 1921-24;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1951; ET, 1962) 또 신약에서는 볼트만(1884-1976)의 공간복음 연구를 통해 발전(The History of the Synoptic Tradition, 1921; ET 1968). 알트(1883-1956)와 그의 제자 노트(1902-68), 폰라트(1901-71) 등도 양식비평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였고, 소위 말하는 편집비평(Redaction Criticism)으로 발전시켰다.

-궁켈에 의하면, 시편은 크게 분류해서, 찬양(Hymns of Praise), (왕좌)즉위시(Enthronement Psalms), 공동체애가(Laments of the Community), 왕즉시(Royal Psalms), 개인애가(Laments of the Individual), 개인감사시(Individual Songs of Thanksgiving) 등이 있다. 베스트만은 시편을 주로 찬양(praise)과 애가(lament)로 이해했으며, 찬양을 서술적 찬양(descriptive praise)과 고백적 찬양(declarative/confessional praise)으로 세분했다

시편 137: 공동체 애가—시온을 기억하며

I. 불평/애가	1-4
A. 환경설정: 포로기 바벨론 강가	1-3
1. 불평을 보고	1-2
2. 불평의 이유	3
B. 애가: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현실	4
II. 맹서—시온을 기억: 조건문 형식	5-6
A. 예루살렘을 기억하리란 맹세	5
1. 조건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5a
2. 귀결절: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5b
B. 잊지 않겠다는 맹세	6
1. 귀결절: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6a α
2. 조건절 두개	6a β -b
a.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6a β
b.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6a γ -b
III. 간구와 소원/저주	7-9
A. 간구: 에돔에 대하여—2인칭 형식	7
1. 에돔의 (행위)를 기억하길 간구	7a α
2. 에돔의 언행에 대하여	7a β γ -b
a. 행동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7a β
b. 말로: 인용구	7a γ -b
i. 인용구 형식: "저희 말이"	
ii. 인용절: "훼파하라 훼파하라 그 기초까지 훼파하라"	
B. 소원: 바벨론에 대하여—3인칭 형식	8-9
1. 저주대상의 설정: 바벨론	8a α
2. 저주	8a β -9
a. 일반적: 바벨론 행위대한 보복	8a β -b
b. 구체적: 어린것들을 반석에 매어침	9

신뢰의 고백(confession of trust)은 보통 애가—공동체와 개인적 둘 다—의 중심부분을 이루는데, 여기서는 맹서로 대체되었다. 4절과 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대체로, 신뢰의 고백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certainty of being heard)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서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단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넘어, 시편기자는 스스로가 시온신학의 정당성을 묻고 있다. 변화하는 역사와 현실 속에서도 시온 (꼴통) 신학이 타당한가?

시온신학(?)—Songs of Zion (Pss. 46, 48, 76) and Zion Tradition

오늘의 말씀: 신학은 늘, 느~을 변한다!!!!!! (마 5:38-44)